

27 차 바오로 가족 총 통솔 모임

아리차, 천상 스승의 집, 2009년 1월 7-11일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께

27 차 바오로 가족의 총 통솔 모임을 마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한 체험, 곧 형제애를 견고하게 해주는 공동 유산에서 길러내는 기쁨, 우리를 결합시키고, 우리의 여정을 도와주는 바오로인의 성소에 대한 열정,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카리스마를 창의적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각 수도회의 소식을 해마다 소박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도 나누고자 합니다.

바오로 해를 보내고 있는 교회의 배경 안에서 이 모임의 고찰과 나눔의 주제는 우리의 창립자: **바오로 가족을 위한 성 바오로의 해석자 알베리오네의 카리스마적 체험의 빛을 통한 못 민족 사도에 관하여 초점을** 모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중 모임을 모든 바오로 가족에게 의미 깊은 장소인 성 밖의 성 바오로 대성전, 사도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성 바오로 수도회의 총장 실비오 사씨 신부님은 개막미사 인사에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성 바오로 대성전을 순례한 것은, 기도의 정신과 과감한 사도적 용기를 칭하고 이를 바오로 가족 수도회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은 지향으로 이곳에 왔으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숙고가 우리 수도회들과 바오로 가족 전체의 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바오로를 알다

모임 첫째 날 우리의 작업은 성 바오로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Antonio Pitta 신부님이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못 민족의 복음화**를 주제로 우리의 숙고를 안내하였는데, 신부님의 강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어제와 오늘, 바오로인의 복음화 방법에 관하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Romano Penna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독창적인 환대와 거부, 우리 시대 안에서 환대와 실제의 거부를 지적하면서 **초대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 바오로 사도의 독창성**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해석한 성 바오로

그 다음은 타르소의 성 바오로에게 카리스마적으로 접근하는 차례였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사상 안에서 바오로 가족을 구성하는 각 수도회에 말씀하신 성 바오로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함께 응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연구하고 해석하여 발표한 창립자의 바오로인의 비전은 우리를 확립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키는 공통분모와 고유한 특징 몇 가지를 전반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카리스마의 공통 원천에서 길러내는 작업은 언제나 큰 기쁨을 줍니다. 가족 안에 속해있다는 자긍심을 키우고, 교회와 인류의 선익을 위하여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유산 속에 내포된 영적 사도적 생명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그분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책임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바오로 가족의 기도 안에 표현된 성 바오로

각 수도회 대표로 구성된 바오로 가족 기도서 검토 위원회가 그 동안 소중한 카리스마적 유산을 보존하는 텍스트의 역사와 원전 비평을 통해 연구 조사한 작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한 자료를 간단하게 발표한 다음, 창립자께서 작성하신 성 바오로께 바치는 기도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가장 호기심을 갖게 한 것은 성 바오로 사도의 호칭기도입니다. 4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몇 명의

바오로인들이 이 기도문을 중국어로 작성하였고, 이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알베리오네 신부님께 보냈는데 창립자께서는 이를 매우 좋아하시며 기도서에 삽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도 기도하는 법은 믿는 법을 드러낸다 (*lex orandi - lex credendi*)는 고대 원칙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과 개방으로 고무되었던 알베리오네 신부님을 마음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화의 미개척지를 새롭게 탐구하도록 격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통점의 나눔

여러 강의와 발표 내용을 근거한 나눔에서 공통점으로 모아진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 사도 바오로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심화하고, 교회와 사회에 그분을 널리 알리도록 한다;
- 바오로인의 성소에 합당한 삶과 사도직의 형태와 사고방식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성 바오로를 알도록 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의 신비를 충만하게 전하는 성 바오로의 신비적, 사도적 은총을 우리 안에 활성화 한다;
- 성 바오로를 공통 창립자로 모시는 가족으로서 활동하고 알려지도록, “사회의 일원으로서 오늘날 살아 있는 성 바오로”의 가족으로 존재하도록 더욱 더 노력한다.

다음 모임을 위한 약속

성 바오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바오로 해의 폐막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적합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 바오로의 생각과 삶을 깊이 깨닫는데 노력을 하자고 우리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가족 총 통솔은 만장일치로 **신비가이며 사도인 바오로**를 주제로 숙고하기 위해 2010년 1월 7일-10일까지 아리차 천상 스승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바오로에 대해서, 그리고 바오로 가족의 여러 수도회에게 하신 성 바오로에 대한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사상을 함께 재 고찰하였다는 사실은 이제 통솔의 봉사를 수행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이 체험의 영향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사도 성 바오로를 바오로 가족의 아버지요 스승, 모범, 창립자로 제시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 바오로를 통하여 탄생하였으며, 그분에게서 양육되었고 성장하였으며, 그분에게서 참된 정신을 이어 받았습니다. (AD 2 참조) 그러므로 성 바오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와 통솔들이 함께 연구하고 숙고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장려하고 지속하도록 초대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2 코린 1, 24)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민족의 사도의 말씀으로 애정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완덕을 추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2 코린 13,11).



27 차 바오로 가족 총통솔 모임 참석자 일동

Ariccia, 2009년 1월 11일